

# ‘푸른 숲 조성’ 목포시·함평군 대대적 나무심기

본격적인 식목 철을 맞아 목포시와 함평군이 대대적인 나무심기에 나선다.

목포시는 자연·인간·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거시적 산림행정’을 추진하고, 함평군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앞장서기 위해 녹색 숲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목포시, ‘거시적 산림행정’=목포시는 올해 경제적이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조림사업과 등산로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우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뒤편 중삼학도에 화목류·편백·진달래·철쭉을 심고, 양을산 산림욕장 등 4ha 구간에 편백·이팝·동백·황칠나무 등을 식재한다.

옹라산과 태풍피해 지역인 울도 4ha 구간에 3500만원을 들여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림을 조성한다.

### ■목포

#### 자연·인간 조화 ‘거시적 산림행정’

#### 19억 들여 등산로에 편백 등 식재

한다.

또 목포문화관 후면부 입암산에는 유실수와 경관수를 식재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숲 쉬고 상생하는 건강한 도심을 만들 방침이다.

이어 고하도·양을산·산정산 등 15개산의 등산로 정비와 함께 이충무공 유적지~옹머리 2.3km 구간에 신규로 등산로를 개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달산 일원에 1억원을 투입해 숲속의 쉼터·생태해설판·수목 및 야생화 식재 사업도 펼친다.

### ■함평

#### 기후변화 대처 이산화탄소 줄이기

#### 나산면 일대 백합 등 22만본 심어

정종득 시장은 “산림을 보호하고 잘 가꾸는 일이야말로 시민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행정으로 풍요롭고 깨끗한 산림자원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녹색숲 조성=함평군은 올해 군민들의 나무심기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나산면 덕리리 일대에 이달 말까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백합나무 등 5종 22만1000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또 리기다 소나무림 경신조림, 불량 임지 수종 경신과 함께 도로변 자투리공간 조성, 1가정 1화분 가꾸기, 마을별 임면 녹화, 헌수 운동 전개 등 나무심고 가꾸기에 대한 의식전환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나무를 심어 흡수한 탄소를 거래하는 ‘탄소 흡수원법’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정·시행됨에 따라 탄소 흡수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휴 토지 조성, 도시숲 조성, 건전한 숲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12일 함평을 능멸 앞에서 1가정 10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14일에는 함평읍 진양리 일대에서 제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함평=황운희기자 hwang@

# 무안 인구 8만 넘었다

### 전남도청 이전·남악신도시 개발 ‘순풍’

#### 22년만에 회복...도내 郡 중 1위 ‘영예’

무안군 인구가 8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도내 군(郡) 가운데 확고부동한 1위를 차지했다.

무안군은 3일 “이날 박모(53)씨 가족의 전입 등 이날 현재 8만11명으로 8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7년 32만5000명에 달했던 무안군 인구는 1987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06년 6만1000명으로 바닥을 쳤다.

이런 증가세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신도시 개발 순풍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입인구는 지난 2007년 6만3674명, 2009년 7만2417명, 지난해 7만 9367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구 8만명 시대는 지난 1992년 8만2163명 이후 22년만이다.

이와함께 무안군이 도내 17개 군(郡)지역 중 인구 수 1위의 이른바 대

군(大郡)에 이름을 올린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도내 군지역 인구 1위인 해남군(7만7742명)을 넘어섰다.

남악신도시가 조성된 무안군 삼향읍은 전남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2005년 말 7700여명에서 지난해 말 2만6000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전남에서 최근 5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곳은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이 유일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오는 2020년을 전후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구 10만명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며 “남악신도시 도시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군 전반적인 문화, 환경,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선박·해양시설 사고 예방

#### 목포항만청, 안전점검 실시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룡)이 최근 선박과 해양시설,항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목포 항만청은 “기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해양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시설들과 환경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봄철(3~5월)은 사고가 가장 많은 여름철(6~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목포항만청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국 통제, 내항선 점검, 해상 교통관제 등 상시적 안전관리 외에 해양사고 취약분야를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꿈에 그리던 입학식

가정형편 등으로 제때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학교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제29회 입학식이 3일 열렸다. 올해 중등과정에 290명, 고등과정에 348명 등 20~74세 만학도 638명이 입학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제공)

## 전북

# 순창군 토종종자 고유품종 선발한다

### 농기센터, 갯·상추·조 등 48작목 121점 종자 수집

### 시험재배 통해 병해충·특성 진단 20여종 선발기로

순창군이 토종종자를 수집해 시험재배를 통한 고유품종 선발에 발 벗고 나섰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농가와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48작목 121점의 토종종자를 확보했다. 토종종자는 ▲원예작물(토종 갯·상추·무·호박·가지·참외) 17점 ▲식량작물(강낭콩·동부·귀리·

조·벼) 67점 ▲특용작물(참깨·들깨) 16점 ▲기타작물(여주·수세미) 19점 등이다.

센터는 올해 구입된 소득개발 시범포에서 병해충에 강하고 고유특성을 가지고 있는 20여 품종을 선발해 재래종자의 생육 및 품질 특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기능성 성분도 다양 함유한 품종을 선발할 예정이다. 토종작물인

여주 등은 약리효과가 커 기능성 가공제품의 원료화와 제품화 방안에 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토종 갯과 상추는 함량성분과 기능성 성분(숙면유도·항스트레스)이 많아 시험재배를 통해 고유품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웰빙과 힐링 열풍에 따라 토종종자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들 품종을 힐링 토속음식 개발로 연계함은 물론 농촌 체험학습 용도의 단수 우량개체 선발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서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 29~30일 국내 최대 규모 MTB파크 개장 기념

고창군은 최근 완공된 MTB(산악자전거)파크에서 오는 29~30일 이틀간 전국산악자전거 종량대회를 개최한다.

MTB파크 개장을 기념해 여는 이번 대회는 올림픽(XCO), 헬린지(XCM), 엘리미네이터(XCE), 다운힐(DH), 펌프트랙(PUMP TRACK), 엔듀로(ENDURO), 듀얼슬라럼(DUALSLALOM) 등 7개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다.

대회는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이다.

한편 해발 640m의 고창 방장산에 만들어진 MTB파크는 국내에서 가장 긴 15km의 MTB 전용 코스와 훈련센터 등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악자전거 공원이다.

/고창=윤형기기자 cy0370@

## 단신

### 정읍농기센터,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일 부터 5월 23일까지 11회에 걸쳐 맞춤형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년 이내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생활 적응을 돕고,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귀농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작목 선정 방법 ▲성공하는 귀농·귀촌 및 친환경 농업의 의미 ▲농기계 안전교육 및 운전실습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접수는 7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농업인 상담소에 하면 된다. 문의(063-539-6261) /정읍=박기섭기자 parksj@

### 남원시, ‘디딤 씨앗통장’ 후원자 모집

남원시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디딤 씨앗통장’ 후원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자 본문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장애인

시설 아동이 대상이다. 아동발달 지원계좌(CDA)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대 3만원까지 매칭이 된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문의(063-620-6219)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순창 썬치면 ‘8인의사 추모제’ 봉행

순창군 썬치면(면장 최종국)은 지난 1일 영광정에서 ‘8인의사 추모제’를 봉행했다.

추모제는 유가족을 비롯해 황숙주 군수와 최영일 의장, 기관단체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회고사, 추모사, 만세삼창, 독도 도발 규탄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썬치면은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의병투쟁을 결의하고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보내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김원준 선생을 비롯해 이항노, 김정중, 설문호, 송극민, 김요명 선생 등 8인의사를 기리는 추모제를 매년 열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군,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

고창군은 오는 14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했으나 기준초과로 선정되지 않은 세대와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당)추천으로만 지원 받은 학생이다. 소득·재산·부채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최

저생계비의 130%인 212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에 납부해야하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개인용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비용을 대상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문의(063-560-2281) /고창=윤형기기자 cy0370@



94년전 3·1절 독립만세운동 재현

남원시 덕과면 발전협의회와 사율리 동해골 주민들이 지난 1일 3·1절 기념탑 광장에서 94년전 3·1 독립만세 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kwangju.co.kr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